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및 정부 정책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이동희, 서진우, 김유진, 강중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dongs423@kangwon.ac.kr

Gender roles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and government policies Analysis of the impact on childbirth intentions

Dong-Hee Lee, Jin-Woo Seo, Yu-Jin Kim, Jong-Soo Kang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및 정부 정책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역할태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성역할태도가 $\beta=25^{***}$ 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신뢰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37로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6.4%가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예상한다. 저출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1].

저출산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거시적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결혼 및 출산 행위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의 행동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회구조적 맥락(거시적 사회구조)에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환경과 결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역동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저출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은 개인(가치관)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생물학적 성이나 사회적 성의 분류에 따라 소속된 사회 내에서 적합하다고 인식되며, 그에 따른 성별에 기대되는 행동, 성격, 태도 등이다. 지금 사회에서 중요시 되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성 역할 태도는 결혼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데 올바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보다 자존감, 자아실현, 정취동기, 특히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출산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자신의 기능에 대해 내리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감이다.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특히 교육과 보육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가정의 교육, 보육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하게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란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는 신념이다." 또 '국민들의 기대'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앞을 내다보는, 즉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은 각 시점에서 정책의 실시기간, 미래에 일어날 정책의 효과, 정책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예상 혹은 기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정책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뜻한다.

3. 연구방법

3.1 표본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성역할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정책 신뢰도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였다.

3.2 자료수집 방법

성역할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정책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7문항, 29문항, 6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3 측정도구

성역할태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는 양옥경(1994)이 개발하고 소개한 삶의 만족도척도는 사회생활 영역을 제외한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정책 신뢰도척도는 이보라(2017)가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출산의도에 관한 조사에 사용한 척도 중 선별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하여 합을 계산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정부정책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28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삶의 만족도-정부정책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년에 따른 성역할 태도-삶의 만족도-정부정책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성역할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정책 신뢰도 종속변수인 출산의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성역할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정책 신뢰도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산의향에는 성역할태도($\beta=.25^{***}$), 삶의 만족도($\beta=.1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정책 신뢰도($\beta=.11$)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0.66^{***}$). 즉 성역할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며, 정부 정책 신뢰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의 점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커지지만 정부 정책 신뢰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가(VIF)가 1.9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Durbin Watson 역시 1.90으로 오차 문항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R^2 은 .12로 나타났다.

<표 1> 출산의향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VIF
	B	표준 오차	β		
(상수)	.70	.40		1.80	
성 역할 태도	.33	.08	.25	4.16***	1.02
삶의 만족도	.21	.01	.13	2.15*	1.07
정부정책 신뢰도	.11	.07	.11	1.76	1.08
R ² (수정된 R ²)	.12(.104)				
Durbin-Watson	1.90				
F	10.66***				

***P<.001, *p<.05

5. 결론 및 제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정한 가설을 토대로 보면 1. 대학생의 성역할태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2.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입증되었으며 성역할태도가 유의수준 .25***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신뢰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1.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끼친다. 2. 정부정책신뢰도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성별에 따라 출산의향에 차이가 있다. 4. 학년에 따라서는 출산의향에 차이가 없다.

후속연구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본 연구에 제언을 하면, 우선 출산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다는 조금 더 개인화되고 맞춤형인 인구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사회적 인식 등의 개선 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출산을 단순히 출산만 볼 것이 아닌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보고 포괄적인 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다.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양영철, 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7, 129-164.
 [2]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3] Cherlin A.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4] Kahn S. 2007,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s to marry: A comparison of Americans and Australians. UW-L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10, 1-7.
 [5]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